

# 떠오르는 주력 특산품으로 '각광'

## 순창 발효커피 '리던', 강천산 휴게소 광주방향 매장 오픈... 인지도 지속 상승

순창군이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고속도로 강천산 휴게소 대구방향에 이어 최근 광주방향에도 발효커피 리던(REDONE) 매장을 오픈했다.

강천산 휴게소 광주방향에 위치한 커피매장의 연 매출액이 3억원에 이르러 있어 이번 발효커피 전용매장 오픈으로 방문객들에 대한 인지도 확대와 매출액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발효커피 리던은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2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지난 2016년 상품화에 성공한 커피로, 유산균과 고초균을 활용한 것이 이 제품의 특색이다.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커피원두를 개발한 만큼 맛과 풍미가 우수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는 리던 판매액이 커피업계에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지만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확대와 인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액을 늘려나가고 있다.

리던 커피의 매출액은 지난해 1억 5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37% 가까이



순창군이 지난해 12월 강천산 휴게소 광주방향에 발효커피 리던 매장을 오픈했다.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0% 성장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8일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쏘카리 편에 방영되면서 제품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어, 매출액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또한 이번 방송분이 SNS매체 및 유튜브를 통해 여러 채널로 노출되면서 향후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또한 KBS1 일일드라마 '여름아 부탁해' 에도 관련 커피제품이 노출될 예정이어서 지속적으로 판매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황숙주 군수는 "발효분야는 순창의 향후 100년을 이끌 동력이다"면서 "발효커피 리던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발효분야의 최우선 자치단체라는 브랜드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인옥)은 국유양묘사업소의 현장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양묘사업소는 보성·남원 2곳으로 국비 5억원을 들여 총 2개소의 근로자 휴게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9일 '양묘사업소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서부청에 따르면 근로자 다수가 노령근로자이며,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루어져 휴식장소가 부족하였으나,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휴게시설의 조성사업은 작업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옥 서부청장은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매아리

### 순창군, 을지태극연습 실시

국가위기에 대응하고 전시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군·경 합동훈련인 '2019 을지태극연습'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을지태극연습'은 전시 대비는 물론 대규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포괄적 안보상황을 대비해 진행되는 새로운 형태의 훈련으로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 2부 전시대비연습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순창군은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토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9일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7733부대 2대대, 경찰서, 소방서, 한전, KT 등 유관기관과 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테러대비 합동대응 훈련도 추진한다.

이날 훈련에는 순창군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참석해 각 기관들의 위기상황 대응 공조체계를 확인하고 훈련 참여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각종 위기대응 훈련은 공공기관만의 일은 아니다"면서 "모든 지역 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훈련실시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적극행정으로 애로 해소 앞장

## 남원시,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남원시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진행, 올 1분기에는 총 106건의 사례를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남원시의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주제는 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해석으로 공장집적화를 추진한 사례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남원시 노안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 주하이코리아의 공장이전을 추진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청 투자유치팀과 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지난해 11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안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하이코리아의 제1공장과 제2공장 분리에 따라 기업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보조금 수령기업의 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며 공장 이전이 불가해, 남원시는 산업부에 관련 법령의 적극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이전이 가능토록 추진하였고, 공장확장·이전에 따라 하이코리아는 기업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의 개선효과를 얻게 되었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사례가 확산되어 전 공무원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 옥천골미술관, 아름다운 동행 미술 작품전 열어

순창군이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미술작품으로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아름다운 동행 미술 작품전'이 다음달 9일까지 순창 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우리 둘이 명화 따라잡기'와 '나의 세계 전행글', '내 마음 아크릴화' 등 3가지 컨셉으로, 순창북

중학교와 순창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군을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에서 전시된다는 생각으로 작품제작에 임해 그 어느때보다 열정을 다했다.

특히 '우리 둘이 명화 따라잡기'는 2인 1조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협

동심과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을 지도한 김하강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작품이 미술관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한 기쁨이었다"고 전하며 "작품에 열중하는 아이들 모습을 지도하는 지도도 더 열중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욱이 지난 21일 전시행사는 폴라랜드와 인형극을 선보여 전시회를 축하해주려 모인 학생들에게 특별한 공연도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23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열린 KBS 사랑나눔 행사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성황리 마무리 됐다.

# 따뜻한 손길에 임실군민 '활짝'

## KBS사랑나눔 행사, 500여명 참여 속 성황리 마쳐

23일 임실군민체육회관에서 열린 KBS 사랑나눔 행사가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속에 성황리 마무리 됐다.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KBS 전주방송총국(총국장 윤제춘)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행사는 도내 농촌지역 및 소외지역에 사랑을 임실군에서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나눔 문화조성을 위해 심민 군수와 군의회 신대용의장, 윤제춘 KBS전주방송총국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에 직접 참여하며 사랑을 나눴다. 이응호 지역구 국회의원은 행사장을 찾아 무료봉사 활동을 격려하고, 주민들을 만나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듣는 등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주민들이 찾아온 가운데 여러 유관기관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KBS는 이날 임실군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는 임실필봉농악전수회의 공연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사랑나눔 봉사활동이 펼쳐졌다.

전주 비전대학교에서의 피부관리, 이미용봉사, 장수사진촬영 봉사활동 등, 대한적십자전북지사의 급식차량 및 종식지원 500인분 급식봉사를,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한방치료 및 처방봉사를,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약제조 봉사를, 평화미추추과에서는 치과진료를,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동맥경화 및 혈압검사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소속 서한샘 변호사와 이한명 변호사가 현장을 찾아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해 많은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심민 군수는 "우리 지역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고령층인 데다가, 농촌지역이다 보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공영방송인 KBS가 직접 찾아오셔서 다양한 무료봉사 활동을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하다"며 "오늘도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다들 좋아하시는 걸 보니 기회가 되면 또 오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보건소, 치매 친화적 공동체 안심마을 운영 '호응'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가 함께 만들어가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치매안심마을로 노안동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 및 지역주민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를 존중하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 치매가 있어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생활이 가능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전반적으로 치매예방활동을 선도하는 마을이다.

노안동은 2018년 노안동 2개동에 대해 기억마을을 시책사업으로 시범 운영, 치매극복 선도기관, 선도단체를 양성하였으며, 주민주도형 공공서비스 구축 시책사업과 연계해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이다.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13일 지역주민, 공공기관, 복지관, 경찰서 등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의 기회를 가졌으며, 노안동 전체 16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안심마을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가지면서 치매환자 및 안심마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